

‘탱크’ 최경주 2연패 돌진



버디 6개 몰아쳐 선두 이용훈에 2타 뒤진 공동 2위

SK텔레콤오픈 3R

‘탱크’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한국프로골프(KPGA) SK텔레콤오픈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힘차게 진군했다.

최경주는 23일 인천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전275야드)에서 계속된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1개로 막고 버디 6개를 뽑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사흘동안 9언더파 207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4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친 이용훈(35·르꼬끄골프)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라 마지막 타역전승에 도전한다.

최경주와 같은 공동 2위에는 김도훈(20·타이틀리스트), 박상현(26·앙드레김골프), 키건 브래들리(미국)가 자리해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경주는 전반에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결들이 2타를 줄였지만 공동 선두로 출발한

이용훈도 2타를 줄이며 쉽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후반 5개홀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낸은 최경주는 이용훈과 격차를 1타로 줄이기도 했지만 이용훈은 16번홀(파5)에서 버디 퍼트를 흘려 떨어뜨리며 2타차로 달아났다.

최경주는 18번홀(파4)에서 10m를 남기고 회심의 버디 퍼트를 때렸지만 볼이 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 티수를 더 줄이지 못했다.

한편 황재민(29·김안과병원)이 공동 6위(8언더파 208타), 김형성(29), 남영우(36), 김도훈(20·넥슨홀딩스)이 공동 7위(7언더파 209타) 등 선두와 4타차 이내에 포진, 역전승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연합뉴스

한희원, 12언더 단독 2위

LPGA 투어 코닝클래스 2R

이선화·최나연·강수연 공동3위

한희원(31·월라코리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클래스 2라운드에서 단독 2위를 달렸다.

한희원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223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를 끓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가 된 한희원은 단독 1위 카린 이세르(프랑스)에 2타 뒤진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2006년 10월 혼다 LPGA 타일랜드 이후 첫 우승 가능성을 밝힌 한희원은 올해는 8개

대회에 나왔지만 미켈롭 울트라오픈 공동 15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2006년 이 대회 우승을 했던 한희원은 “첫 흠인 10번홀(파4)에서 이글을 잡아 출발이 좋았다. 파5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틀간 4개의 파5홀에서 버디 6개와 파 2개로 타수를 줄인 한희원은 우승할 경우로 지 존스, 베시 킹에 이어 이 대회에서 두 번 이상 우승한 세 번째 선수가 된다.

전날 공동 선두였던 박희영(22·하나금융)은 버디 3개와 더블보기 2개로 1타를 끓어 7언더파 67타를 쳐 4언더파 140타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면 이선화(23·CJ)와 최나연(22·SK텔레콤), 강수연(33·하이트)이 나란히 10언더파 134타로 공동 3위에 자리 잡았다.

지난주 사이에이스 클래스 월피언 오지영(21)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20위에 올랐고 신지애(21·미래에셋)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줄이며 5언더파 139타를 쳐 박세리(32) 등과 함께 공동 39위로 2라운드를 마쳤다.

첫날 100위밖에 차지했던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끓어 5언더파 67타를 쳐 4언더파 140타로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김술예 ‘금빛질주’

주니어육상선수권 여자 200m

광주체고 김술예가 여자 200m에서 금빛질주를 펼쳤다.

김술예는 23일 영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200m에서 25초 90을 기록, 민은지(구로고·26초 65)·임송이(광주체고·26초 76)를 제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치고 1위로 끝인했다.

정윤태는 남자 200m 경기에서 22초25를 기록하면서 양승기(전북체고·21초 61)·강인구(과천시청·21초 80)에 이어 세번째로 골인, 동메달에 그쳤다.

한편 여자 400m하늘경기선수 김민정(광주체고)이 1분05초58을 기록, 손경미(포항시청·1분03초73)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심한솔·박은주 금

협회장기 볼링 남·여고부

중학부 김한웅·남다름 금

첨단고 심한솔이 제23회 협회장기 남녀 볼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심한솔은 23일 더월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경기에서 1천334점을 기록, 류지훈(1천309점)·최우섭(1천287점)·이상 첨단고)을 제치고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여고부 경기에서 1천215점을 기록한 박은주(첨단고)가 김희빈(첨단고·1천154점)·이환(조대여고·1천125점) 보다 크게 앞선 점수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 경기에서 김한웅(월계중·1천283점), 여중부 경기에서 남다름(동신여중·1천47점)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양궁 장세희 金 명중

대통령기 결승 정성원 꺾어

장세희(공주시청)가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본선에서 금메달을 명중 시켰다.

장세희는 23일 예선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남자부 본선 토너먼트 4강전에서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이자 소속팀 감독 겸 선수인 박경모를 113-110으로 제친 뒤 결승에서는 정성원(국군체육부대)과 접전 끝에 115-114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역도 기대주 성명창 銅 3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한국 역도 기대주 성명창(17·대전체고)이 제1회 세계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성명창은 22일 밤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대회 남자 69kg급 경기에서 인상 121kg, 유흥 147kg를 들며 합계 268kg으로 세 종목에서 모두 3위를 차지했다고 대한역도연맹이 23일 전해왔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코미아코프(17)는 이 체급에서 인상 130kg 유흥 154kg, 합계 284kg를 기록하며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챌린저테니스 김소정 준결 털락

김소정(한솔)이 2009 GM대우 인천국제여자챌린저 테니스대회(총상금 2만5천달러) 단식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세계 랭킹 474위 김소정은 23일 인천시립 가좌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단식 4강전에서 8번 시드의 한신원(291위·중국)에 0-2(1-6 2-6)로 졌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랑전(394위·중국)이 엘레나 칼로바(283위·러시아)를 역시 2-0(6-1 6-4)으로 꺾고 한신원과 24일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美 전훈 박태환 자유형 1,500m 조 1위 결승행

올 첫 공식경기 출전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

이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올림픽 월피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보다 빨랐다.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경기에서 전체 참가 선

수 중 1위로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올랐다.

박태환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올렛 주니어 야쿠이티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애비언 국제 수영의 희망